



4면

효천지구와 삼천동을 잇다

전주매일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 (음 9월 22일) 제288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 수소산업 발전 청사진 제시

도, 수소산업 육성 발전계획 수립

▶ 관련기사 16면

그린수소 거점화·전략산업 수소융복합화 등

4대 추진전략 25개 세부과제 발전전략 마련

전북도가 지난 2019년 8월에 수립한 '수소산업 육성 계획'을 현 시점에 맞게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한 수소산업 발전 청사진을 제시했다.

도는 수소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고자 4대 추진전략, 25개 세부과제 이행방안을 담은 '수소산업 육성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발전계획을 통해 전북 지역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연계한 그린수소 산업 육성이 가능하고, 현대차·일진하이솔루스·두산퓨얼셀 등 산업 기반이 형성됐다고 진단했다. 또, 에너지기술연구원 연료전지실증 연구센터 분원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도 갖춰 전북도가 수소경제 시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전북도는 '탄소중립 2050' 선도 그린수소산업 중심 전북도라는 비전 하에 ▲2030년까지 그린수소 연간 10만 톤 생산 ▲수소저장 및 중대형 수소모빌리티 선도지역 도약 ▲수소차 20,000대 및 충전소 50개소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으로 ▲그린수소 거점화(5개 과제), ▲전략산업 수소융복합화(6개 과제), ▲수소활용 활성화(6개 과제), ▲수소안전, 기업육성 체계화(8개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도는 2030년 그린수소 산업(10만톤/년, 국내 수소생산 10% 목표)을 선도하기 위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연계해 수전해기업과 연구기관을 집적화한다.

이를 통해 생산된 수소를 저장·유통·활용하는 전주기 그린수소 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산업 육성 및 친환경 가치 실현에 앞장선다.

전략산업 수소 융복합화와 관련, 도

는 산업적 여건을 확보한 상용차·건설기계·농기계 등 주력산업을 수소와 결합해 수소융합산업을 육성한다.

이에, 중대형 수소모빌리티 전·후방 산업육성 및 핵심부품의 국산화로 선도기업 중심의 밸류체인을 구축한다.

주요 사업으로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수소 상용차·건설기계 등 주력산업 사업화 추진 등이 있다.

또한, 정부 그린뉴딜 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수소활용 기반을 조성한다.

수소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 확대를 통한 미래차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해 조속한 수소경제 구현을 선도한다.

아울러, 수소의 신뢰성, 안전성,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체험 프로그램 다양화, 수소안전 체험관 건립을 추진한다. 또 대학·연구기관 등과 그린수소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기업을 육성해 수소산업의 혁신역량도 강화한다.

전북도는 수소산업을 육성하고자 수립한 4대 추진전략 25개 세부과제 중 그린수소생산클러스터 조성,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 수소융합 검사지원센터 건립 등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정부의 탄소중립 2050과 에너지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그린 수소 전주기(생산·저장·운송·활용) 산업 육성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혁신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수소산업 육성 발전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생태문명시대를 선도하겠다"며 "전북도의 대표산업인 탄소산업과 수소산업, 양 날개로 전북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활력 넘치는 전북도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호상 기자



지역기반 영화교육사업 활성화

전북도와 사단법인 전북독립영화협회, KT&G 전북본부가 26일 '지역기반 영화교육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관련기사 3면>

제5차 국도7국지도 건설계획(2021년~2025년)에 반영된 국도 77호 '노을대교(부안~고창)' 건설사업이 예상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26일 국토부(익산청)가 노을대교 건설사업에 대해 2022년 설계·시공 일괄입찰(Tum-key) 발주를 목표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 조사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결과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을대교 건설 절차 본격화

국토부, 기본계획 수립·사전조사 용역 발주

남원 호경~고기 등 3개 사업도 연내 착수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 조사용역은 현지조사, 기상 및 해상조사, 도로시·중점 측량, 최적노선 검토, 해상교

량 형식비교 등 설계·시공 일괄입찰(Tum-key) 발주에 필요한 자료 작성을 목적으로 향후 4개월 동안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설계·시공 일괄입찰(Tum-key) 공고를 통해 현장 설명회 개최, 기본설계서 작성·제출, 설계서 평가 과정을 거쳐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며, 국토부(익산청)는 기본설계서 제출 시 우선 시공분에 대한 실시설계서를 함께 제출받아 사업을 조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사업 중 지역 수요와 우선순위에 따라 전국 20개 사업을 올해 설계착수 대상으로 선정할 바 있다.

노을대교를 비롯해 '익산 오산 신지~영만', '무주 설천~무봉', '남원 주천 호경~고기' 등 3개 사업도 설계 착수대상에 포함돼 연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기본계

획 수립 및 사전조사 용역 추진으로 도민의 열망인 노을대교 건설이 눈앞에 성큼 다가옴을 느낄 수 있다"며 "국토부의 신속한 추진에 감사함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을대교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서해안권 관광 및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로 확정된 이항근, 천호성, 차상철 후보(사건 왼쪽부터).

전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확정

이항근·차상철 천호성 등 3명 교육개혁 이행 서명

전북민주진보교육감 후보로 3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전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위원회는 26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검증위원회의 전문성 결여 등의 이유로 단일후보 선출이 지연됐다"고 유감을 표하며, "도민의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선출위원회 참여단체 대표자로 구성된 후보 검증위원회의 6차례 회의를 거쳐 이항근, 차상철, 천호성 등 3명을 경선 후보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위원회는 '2022 전북교육개혁 과제' 이행 책무에 대한 서명식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세 후보는 2022 전북교육개혁 과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며, 서명 후 손을 맞잡았다.

먼저 이항근 후보는 "지난 37년간 수학교사로서, 또 교장 및 교육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염마의 마음같은 '따뜻한 상상력'을 가진 전북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차상철 후보는 "준비된 후보로서 출세우기가 아닌 인간존중 사회·많은 교육을 실현시키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천호성 후보는 "교육계 훌륭한 선배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서겠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다"며 "전문성을 갖춘 젊은 에너지로 전북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선출위원회는 11월 14일까지 선거인단 10만명을 목표로 모집 및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11월 21일까지 선출위원회 회원 대상 선거운동 및 후보자 정책 토론회를 거쳐, 11월 30일 여론조사와 선거인단 투표를 반영한 최종 단일후보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높을 **높** 고창

자연과 사람이 아름답게 공존하는
세계 최고의 자연생태도시
여기는, 고창입니다

고창군 GOSANG COUNTY
유네스코 고창생물민속자연지역
UNESCO Geosang Biosphere Reserve

운곡습지, 고속자작_운곡지운부